

지역 소식통

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안부장관 표창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3일 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국의 광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에 대해 평가했으며 이중 2개 광역시, 3개 지자체가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대형화, 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 자발적인 민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그동안 김제시가 추진해온 재해예방의 노력과 정책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올해 지역 균형뉴딜 사업에 전국 최초로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100억원)이 선정되는 등 연이은 쾌거로 김제시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에서 살면서 탐방'
청년 완주살이 시작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청년들에게 완주에서 머물며,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6일 완주군은 관외 거주 청년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완주 탐방 및 청년 교류를 통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완주 살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18~39세의 관외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14박까지 숙박비 80%를 지원하고, 완주탐방 프로그램, 청년교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삼례읍 '홍스케이와 화산면 에버팜 민박 게스트하우스와 협약을 맺었다.

박성일 군수는 "청년 완주 살이 사업을 통해 완주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을 알아보고 탐방할 수 있을 바란다"며 "청년 쉼터하우스와 행복주택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홍보해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 특혜 의혹 "성역 없는 감사 필요"

행정조사 특위 "삼정이알케이와의 계약 과정 등 진상규명해야"

지난 6월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은 해당 시설의 계약과정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평선 산단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와의 수의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 특수조건에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문서를 받아주기'로 하고 높이 10m를 50m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삼정이알케이에 교부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자를 선정할 이유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는 2013년 8월 22일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자본금 3,000만원의 영세한 업체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

는 회사이다. 게다가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허가 및 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업체이다.

이러한 회사가 토지 구매비용만 약 95억 원에 이르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사업자로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사업자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또한 박두기 의원은 20일 제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김제시에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했다.

김제시민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삼정이알케이(주)와 수의계약 과정 및

특수계약조건 기재 부분의 특혜 주장에 대해 김제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감사를 시행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두기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북도민과 김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하며 "지평선 산단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혜 의혹은 비단 김제시민의 문제가 아닌 전북도 전체의 문제로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 행복추구권이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서 계약과정 중 문제점 및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과정 특혜 의혹, 용량 변경 신청과정 등의 의문점을 한 점의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 '활발'

완주군, 마을안길 포장·배수로 개선 등... 현재 80% 완료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주민 생활권의 증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80%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

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2건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개선 등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주민에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선정 및 실시계획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

이다.

완주군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선정 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은 "완주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적극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리마을 복지계획, 우리 손으로 | 신풍동, 의제 선정 주민의견 수렴

김제시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옥현, 민간위원장 최호길)는 26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10일간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풍동 마을 복지계획 의제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지통장과 협력하여 관내 62개 봉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를 통하여 신바람 신풍농장터 크린 신풍 프로젝트, 신풍 사랑방 신풍 복지 아카데미 등 4개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표보드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주민이 원하는 1개 사업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2개의 의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길 민간위원장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옥현 신풍동장은 "주민이 행복한 신풍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신풍동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가 결혼과 출산, 양육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자 김제사랑 함께 사는 즐거움 행복수기집'을 발간했다.

'행복이 모락모락... 우리 김제살아요'

김제시, 결혼·출산·양육 가치 공유 '행복수기집' 발간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결혼과 출산, 양육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자 '김제사랑 함께 사는 즐거움 행복수기집'을 발간했다.

앞서 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위해 지난해 해피 라이프인 김제(글부문), 다자녀 가족 행복플러스 육아수기 등 두 차례 공모에 이어 올 5월에는 웨딩라이프 행복수기 공모전을 추진했고, 총 15편의 우수자를 선정, 시상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수기집에는 웨딩라이프 행복수기 공모전 최우수작과 신혼일기(요춘동 한정섭), 우수작 ▲김제애 이취준 우리 신혼생활(요춘동 소한나) ▲행복한 김제 화포리 시골부부(만경읍 이미영), 장려작 ▲어서와, 김제에서의 신혼생활은 처음이지(검산동 양혜선) ▲가족은 곧 나,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광화면 수미야수련), ▲나의 서른(금산면 김영미) 총 6편과 다자녀 가족 행복플러스 육아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 4편을 포함해서 만들었다.

수기집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인구정책에 접속하면 행복수기 모음집을 볼 수 있다. 책자가 필요한 시민은 기획감사실 인구성장팀(☎54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는 1다자녀가정↔1사(부) 행복드림 매칭사업(월 10만원, 1년), 출생아 5% 우대적금(신협), 생애 첫 통장 개설 및 입학축하금(4개 새마을금고) 지원, 임신부·다자녀 할인가 맹점 7개소 운영하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결혼축하금을 전국최고액인 1천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200만원~1,000만원) 및 청년부부주택수당(월10만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이자(연 최대 200만원),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최대 2,000만원)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대응

김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압다른 계약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세력이 군산, 익산, 김제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김제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부정적 의심 거래 건수는 46건 98명이며, 이중 세무서 통보는 3건 6명이다.

업다운 계약 등 불법거래신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건에 대해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탈루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